



Delicious Chicken

단돈 1만원에 먹는 파 통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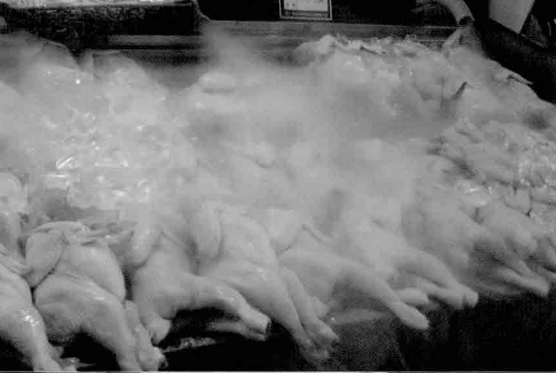
## 충주 '소문난 통닭'



조해인 기자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굳이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를 거론하지 않아도 높다.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 요리사나 주방장 등 직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 만큼 음식, 요리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고,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모 방송국의 '식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가 보다. 요리



하나가 소개될 때마다 홈페이지에는 요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열혈 시청자까지 생겨나고 있다. 많은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와 함께 음식에 얽힌 많은 추억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극 중에서는 전통 한식당인 운암정의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요리 경연을 하다 '산닭요리'를 앞두고 주인공 성찬이 운암정을 떠나자 유아무야 되고 만다. 개인적으로 '산닭요리'가 무척 궁금했는데, 바로 소개되지 못함이 무척 아쉽다. 아무래도 다른 맛집에서 그 맛을 찾아야 할 것 같다.

#### 음식점이 아닌 생닭집?

이달에는 충주에 있는 저렴하고 맛있는 통닭집을 소개한다. 후라이드 치킨에 파를 함께 먹는 일명 '파 통닭'을 찾아 충주로 갔다.

'소문난 통닭'은 충주 공설시장에 자리잡고 있다. 지역 지리를 모르고 길을 나서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찾기가 어려웠지만, 전화로 물어 물어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을 더해 시장 속에 있는 통닭집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충주 '소문난 통닭'은 음식점이 아니었다. 공설시장 내에 있는 생닭을 파는 닭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튀김닭을 팔면서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생닭집에서 닭을 튀겨 판매를 하니 여느 닭집보다 신선한 닭을 공수할 수 있고, 가격도 무척 저렴하다. 제일 비싼 메뉴가 순살 치킨과 양념통닭으로 1만1천원, 후라이드나 파 통닭은 단 돈 1만원이면 맛볼 수 있다.

#### 파와 닭의 깔끔한 조화

사장님께서서는 우선 맛보기용으로 튀겨놓은 닭고기부

터 먹어보라며 권하셨다. 후라이드 치킨집에서 시식을 한다는 점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맛을 보니, 바삭하고 고소한 닭고기 맛이 일품이었다.

파 통닭 1마리를 주문하고 안으로 들어가 기다렸다. 사장님은 닭고기 유통부터 시작해 지금은 닭고기 판매를 하고 튀김닭도 팔고 있다며 10년 넘게 닭고기 업계에 몸담아왔다고 말씀하셨다.

파 통닭은 완성된 닭에 파채를 한가득 얹은 말 그대로 파 통닭이다. 통째로 튀긴 닭에 파가 더해진 것 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닭고기를 뜯어 파와 함께 먹어보니 생각이 바뀐다. 별것 아닌 파와 닭의 만남이 이렇게 조화로우 수 있는지! 기름에 튀긴 닭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만 남았을 뿐 전혀 느끼하지 않았다.

먹다보니 튀김옷에 특별양념이 되어 있어서 후라이드 된 닭만 먹어도 맛이 뛰어났다. 하긴 그냥 닭을 튀겨 파를 곁들였다고 무조건 맛있어 질 수는 없을 터.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이니 만큼 파와 함께 더 맛있어진 것이다.

바삭하다 못해 '파삭' 해진 닭튀김, 짭조름하면서 닭 특유의 냄새가 사라진 닭튀김에, 아무 양념도 되지 않은 파채는 깔끔함 그 자체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닭백숙 재료를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진다. 그 때쯤 빼만 앙상하게 남은 닭고기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시식용으로 준비된 미니 닭튀김을 일부 샀다. 맘 좋은 사장님께서



저렴하게 내 주셔서 서울로 돌아와서도 데워서 맛있게 먹었다.

요즘처럼 비가 계속 내리니, 또 파 통닭이 그리워진다. 🐔

### 추천재목기

처음에 파 통닭을 소개해준 분은 회사의 모 차장님. 충주가 고향이라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자주 드셨다는데, 배 속에 파를 넣고 튀겼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튀긴 닭에 파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지리도 모르는 곳에 찾아가고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다 대동해 통화를 했고, 번호를 잘못 알아 충주에 거주하시는 아무개님과도 통화를 해서 겨우 찾아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애초에 취재 계획도 없이 충주에 가게 되어 제대로 된 카메라를 준비하지 못해 어설픈 사진을 제공한데 대해 독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행 중 핸드폰 중에서는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다는 핸드폰을 가진 이가 있어 그것으로 촬영했으니, 꼭게 봐주시고 다음호에 더 맛있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